

## 성남문화재단 , 문예회관 운영 최우수 기관 선정

성남문화재단이 2009년도 전국문예회관 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일궜다.

(사)전국문예회관연합회는 지난 10일 제주도 해비치호텔에서 전국 106개 문예회관 회원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009년도 전국 문예회관 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2년간의 운영사례를 심사, 수상기관을 선정했다.

성남문화재단은 차별화된 공연 프로그램으로 지역 공연장 운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점과 시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역밀착형 문화정책의 연구·개발 성과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2008년 순수공연누적관객 100만명, 전시 관람객 포함 총 200만명 누적관객 돌파,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문화정책사업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번 발표대회에서는 성남문화재단과 함께 칠곡군 교육문화복지회관, 대구광역시 수성아트피아, 목포시 문화예술회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에 공동선정됐으며, (재)부천문화재단과 함안문화예술회관이 전국문예회관연합회 회장상을 수상했다. 정찬성기자/ccs@joongboo.com